

■ 제6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수산업경영인들의 최대 잔치인 제6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포항종합운동장에서 28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 수산업경영인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한수연은 격년제로 수산업경영인 대회를 열어 우리 수산업의 회생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어업인들이 상호친목을 도모하는 결의의 장이자, 축제 의장을 만들고 있다.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행사에는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이상득 국회부의장,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 이영호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박승호 포항시장등 지자체장과 수산단체 장, 수산경영인들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러졌다.

26일은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7시부터 연예인 축하공연, 도 대항 노래자랑, 수산발전기원 나레이션, 불꽃쇼로 마련된 전야제가 전국 수산업경영인들과 시민들을 함성으로 서막을 장식하였다.

이튿날에는 본행사를 시작으로 어자천하지대본을 주제로 한 길놀이와 치어방류행사,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 등이 열렸다. 치어방류 행사로 수산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어 연안오염과 해양투기,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동향, 동해안 수산업의 미래 등의 주제로 수산업의 문제와 진로를 짚어보았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바다쓰레기 우리 손으로라는 모토를 가지고 푸른 바다 가꾸기 캠페인 행사로 마무리되었



▲ 제6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다. 행사기간 내 구룡포 과메기와 영덕대게, 울진 친환경농산물 등지역특산 수산물 시식·판매코너, 우수 수산기자재 전시회와 어가부채·수산금융 상담코너도 마련되었으며 금융코너에는 수협중앙회 담당자가 직접 나와 어업인 부채경감대책, 경영회생 관련 민원을 받아 상담을 했으며, 농어업용 영구면세화 촉구 서명운동등이 뜨거운 호응속에 진행되었으며 2년뒤 2009년 개최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아쉬움의 달랐다.

www.kst.or.kr

